

“교육행정 추진, 흔들림 없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긴급 전략회의의 주재... “10대 핵심과제 연속성 잃지 않아야”

“교육감의 직위 상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나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력 신장, 책임 교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청 국장, 과장들도 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고, 지원청과 직속기관도 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 온 10대 핵심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혹여라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상황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긴급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변경으로 인해 그간 진행되던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있을 테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지난 27일 전주대학교 교내 리사이틀홀에서 '2025학년도 하계 학생 해외 봉사단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박진배 총장, 황인수 사회봉사센터장, 파견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오스·몽골에 나눔 실천 | 전주대, 2025학년도 하계 학생 해외봉사단 발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7일 교내 리사이틀홀에서 ‘2025학년도 하계 학생 해외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해 황인수 사회봉사센터장, 파견 단원 35명과 교직원,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단원 선서, 격려사, 사진 준비 영상 시청, 봉사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올해는 라오스와 몽골 2개 국가에 총 2개 팀, 50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

먼저, 라오스 봉사팀은 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라오스 루앙프라방 수파누봉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및 파사피 파티이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ICT과학교육, 문화예체능 교육, 환경개선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어 몽골 봉사팀은 몽골 울란바토르 122번 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문화예체능봉사, 노력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진배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

분의 작은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국제적 연대와 상호이해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인수 사회봉사센터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봉사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자기 주도적 커리어로드맵 설계 역량 강화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커리어로드맵 설계 교육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컨설팅리조트 지리산남원에서 커리어로드맵 설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전공 및 직무를 고려한 커리어로드맵을 팀별로 공동 설계하고,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과제 수행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해 팀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커리어 경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를 구조화한 발표 자료로 제작해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로 설계 능력과 팀 기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진로 목표 수립 및 직무 분석 △커리어로드맵 구성 전략 △효과적인 발표 기획 및 전달 기법 등 커리어 설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숙경 센터장은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진로 설계에 대한 청년들의 주도성을 높이고 자신만의 커리어 경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2025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2025년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설명회에는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중앙 부처 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각 기관의 채용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도내 직업계고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별로 진행된 설명회를 통해 공직 채용 과정, 시험 방식, 직무 소개 등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됐다.

또한 현직 공무원들과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공직 입문 계기, 수험전략, 실제 업무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의 실질적 길잡이가 됐다는 평가다.

/장은성 기자

올해 교육행정자료, 업무 효율 ↑·탄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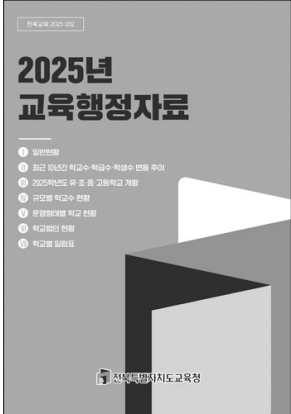
전북교육청, 토너 절약 가능한 ‘나눔에코체’ 사용... 인쇄 부수도 309부로 줄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행정자료를 친환경 방식으로 발간,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높이고 탄소배출은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발간하는 교육행정자료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주요 행정 데이터를 모은 종합 자료다.

특히 올해부터는 e-book으로도 발행해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2025 간추린 교육행정자료 검색기’를 처음 도입해 복잡한 교육통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색기를 활용해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도민들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전북교육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교육행정자료 표지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특히 ESG 실천 일환으로 올해 책지는 일반 글꼴 대비 35%의 토너를 절약할 수 있는 ‘나눔에코체’를 사용해 제작했다.

발간 부수도 전년도 500부에서 309부로 38.2%로 줄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교육행정자료 책지는 기관별로 배부하고, e-book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교육행정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여름철 온열질환 막는다

전북교육청, 내달 11일까지 학교 현장 안전·보건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급식종사자 수가 학교 20곳, 교령의 미화원 및 시설관리원이 근무하는 학교 30곳 등 총 50개교를 선정해 7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를 기준으로 관련 항목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이행 여부 △적정 휴식

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적정성 여부 △작업장 체감온도 확인 △온열질환 응급처치 요령 및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무더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급식실, 외부 시설 작업장 등 고위험 장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황 확인이 아닌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현업업무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26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주시가 주관하는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청년 일자리·정주 여건 개선 청사진 제시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시민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6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주시가 주관하는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개요와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및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의 주요 취지와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손정민 전북대 산학협력단장은 “캠퍼스 혁신파크는 전북대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청사진을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 사업으로, 전국 9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이는 대학 캠퍼스에 청년·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

질의 청년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해 대학·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끌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산학연 혁신허브들을 구축하고, 창업기업과 연구소 등을 위한 공간을 최장 10년간 장기 임대한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률 향상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취·창업 확대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동시에 대학 상권 인근의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정민 산학협력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IR-전북대 등 4개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이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 경력 설계 위한

글로벌 법조 전문가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들의 경력 설계를 위한 글로벌 법조 전문가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학생취업진로처 취업진로지원과는 지난 26일 재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커리어 전략과 성공적인 진로 설계’를 주제로 제4차 명사·전문가 초청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에는 호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약 중인 법조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의 경력 관리와 진로 설정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날 전 호주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셉 카탄자리티(Joseph Catanzariti) 호주 College of Law 학장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커리어 전략’을, 고철수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前 기재부·금융위 고위공직자)가 ‘커리어 성공의 의미와 설계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 제임스 정(James Jung) 호주 법학대학 국제이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 교육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퍼스널 브랜딩과 커리어 목표 설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넸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대상 ‘CI 프로그램’ 진행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센터장 국경수)는 지난 25~26일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CI(Consulting IR)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보육과정의 일환으로 2025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 강의를 비롯해 투자유치 전략과 실제 IR(Investor Relations) 사례 분석까지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벤처캐피탈 대표 및 투자 심사역 등 총 11명의 투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기업별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업 가치 평가 및 투자 적정성 진단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도왔다.

센터는 이후에도 추가 멘토링과 후속 교육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전략 수립과 지속 가능한 투자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